



# 메디체크 건강 환경 가꾸기 건강증진을 넘어 건강환경 가꾸기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국의 하천에 노랑붓꽃을 심는 ‘메디체크  
건강 환경 가꾸기’ 활동을 전개했다.  
건강증진을 넘어 건강환경 만들기 실천을  
위해 시작된 건협의 노랑붓꽃 심기는 전국에  
건강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다.

글 최가영 기자

“엄마, 저 풀은 뭐야?” 아이의 시선이 조금은 낯설게 보이는 식물로 향한다. 서울시 양천구 인양천 산책로에 노랑 붓꽃 어린순이 등장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임·직원들과 건협어머니사랑봉사단이 ‘메디체크 건강 환경 가꾸기’ 활동의 일환으로 인양천 산책로를 찾아 노랑붓꽃 어린순 한 본, 한 본을 정성스럽게 심었다. 굳어진 흙을 뒤엎고 유해식물을 제거한 뒤 중간 중간 물과 비료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랑붓꽃을 심으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양천에 새로이 터전을 잡은 노랑붓꽃의 파릇한 잎에는 생명력이 가득하다. 새해가 오고 다시 봄이 오면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인양천에 화사한 노랑붓꽃이라는 새로운 볼거리가 생길 것이다.

##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진행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가 국민건강지킴이를 넘어 우리나라 하천 주변의 환경과 생태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환경지킴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건협은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주요 하천 유역에 노랑붓꽃을 심는 ‘메디체크 건강 환경 가꾸기’ 활동을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개했다. 각 지부의 임·직원들과 건협어머니사랑봉사단은 해당 지역 자



치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주요 하천 유역 3,379㎡ 면적에 노랑붓꽃 52,500본(본)을 심고,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 주변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메디체크 건강 환경 가꾸기' 활동은 오는 2014년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앞서 건협은 식재 전문가를 초청해 노랑붓꽃의 식재 및 생육과 성장, 지속적인 관리법 등 다양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노랑붓꽃

다가오는 봄과 초여름에 만개할 노랑붓꽃(노랑꽃창포)은 5월에 개화,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란 꽃과 긴 초록색 잎사귀로 보는 이에게 생동감을 주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 겨울에도 새싹이 올라오거나 지면으로부터 10cm 이상 돌아난 초록 잎이 살아 있을 정도다. 아울러 노랑붓꽃은 식물 중 수질정화능력이 가장 뛰어난 식물로, 병·해충에 강할 뿐 아니라 하천유역, 논, 밭, 도로변 등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건협 조한익 회장은 "건강 120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건강 생활실천과 더불어 건강한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하천이 건협에서 식재한 노랑붓꽃으로 단장되어 국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건협 '메디체크 건강 환경 가꾸기' 활동 현장

지부별	식재 장소
서울서부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
서울동부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서울강남	서울시 길동생태공원
부산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
대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신천
인천	인천시 남동구 장수천
울산	울산시 중구 태화강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천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세종	청주시 흥덕구 솔밭공원
대전·충남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유등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
광주·전남	광주시 서구 광주천
경북	대구시 북구 팔거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
제주	제주시 연동근린공원